

문화예술로 떠나는 세계여행

문화전당, 30일~11월 9일 시민강좌·라이브클래식 마련

아시아 근대 역사, 아시아 영화, 라이브클래식...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진행하는 'ACC 시민아카데미'가 이번에는 문화예술로 떠나는 세계여행을 마련했다.

오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ACC 아카데미실과 영상으로 4개 강좌를 개설한 것. 강연 위주에서 벗어나 작품 감상과 예술가와 이야기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한다.

먼저 '아시아 근대 문화를 일군 고독한 여행가'에 대한 강좌(30·10월 7·14·21일)가 온라인으로 열린다. 조혜영 프로그래머, 이승민 감독(평론가), 심주형 교수, 강내영 교수가 4회에 걸쳐 아시아 근대 문화를 꽃피운 나라의 문화, 예술가들의 삶과 모험의 여정을 이야기한다. 일본에 처음 프랑스 요리를 소개한 요리사, 영화가 낯설기만 했던 시절 카메라를 들었던 감독, 자신이 쓴 소설로 사형을 당해야 했던 소설가 등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매개로 아시아를 이해하는 기회를 갖는다.

ACC가 마련한 지역아시아작가전 '친애하는 빅 브라더: 다시는 결코 혼자일 수 없음에 대하여'와 연계한 강좌도 시민을 찾는다. 내달 2·9·16·23일 아카데미실에서 열리며 코로나 팬데믹이 초래한 감시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조망한다. 한길석·서동진·주하영 교수를 비롯해 권



임용현 작가 바이올리니스트 김진

은영 큐레이터, 이연숙·임용현 작가가 강의와 토크를 진행한다.

아시아 영화를 토대로 영화 속 윤리의 문제를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공동체에 진심인 편: 아시아 영화 속 타자와 윤리의 문제'를 주제로 10월 12일~11월 2일(매주 화요일)에 펼쳐지며, 이평래·김용의·구기영·김동영 교수가 온라인으로 강연을 한다. 강사들은 영화, 다큐, 동영상,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20세기 아시아의 공동체 표상을 들려준다.

마지막으로 국내 정상급 연주자의 라이브 연주와 해설이 있는 공연식 강연 '라이브클래식'은 오는 10월 19~11월 9일(매주 화요일) 모두 네 차례 열린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도시를 모티브로 바로크 음악과 예술의 도시 이야기를 펼쳐낸다.

수강신청은 ACC 누리집과 현장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강좌 무료. 문의 1899-556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세계가 '오징어 게임'에 빠졌다 '기생충'처럼 사회구조·메시지 반영

넷플릭스 드라마...한국 작품 최초 美 넷플릭스 인기 1위 돌풍 군더더기 없는 짜임새·배우 열연... '킹덤' 이어 K콘텐츠 대박

국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한국 작품으로서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 인기 순위에서 1위('폴릭스 패트럴' 사이트 기준)를 기록하는 등 한류 콘텐츠의 위용을 다시 한번 과시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물론 14개국에서 1위를, 영국과 프랑스 등 39개국에서는 2위를 기록했다.

지난 17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편 공개된 '오징어 게임'은 더는 물러날 곳이 없는 이들이 거대한 공간에 갇혀 456억원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벌이는 미스터리한 서바이벌 게임을 그린 작품이다.

화려하고 거대한 스케일의 세트장과 이정재의 연기 변신이 눈에 띄며 박해수, 오영수, 위하준, 정호연, 허성태, 아누팜 트리파티, 김주령 등 주조연의 연기력도 합격점을 받았다. 영화 '도가니', '수상한 그녀', '남한산성', '도굴'의 황동혁 감독의 연출도 눈길을 끈다.

'오징어 게임'의 글로벌 돌풍 배경에는 작품 자체의 군더더기 없는 짜임새와 배우들의 열연이 있지만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영화 '기생충'처럼 사회구조와 메시지를 절묘하게 반영했다는 점이 호평을 받고 있다. '기생충'이 그러했듯 '오징어 게임' 속 게임 참가자들과 그들이 게임을 치르는 양상 등 내용은 자극히 한국적이지만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은 글로벌했다.

탈북자, 해고 노동자, 외환위기로 좌절된 펀드 매니저 등으로 표현됐지만 사실 생존 서바이벌극 장르로서 보여준 적자생존의 논리와 그 속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은 지구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했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23일 "극에서 등장하는 오징어 게임, 구슬치기, 딱지치기, 달고나 뽑기 등 게임은 골목에서 하던 흔한 놀이지만 사실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했던 적자생존의 논리를 획득하게 하는 게임이었다는 것을 작가가 발견해 생존 서바이벌에 접목한 게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이 게임에서 동심이 떠나고 사회에 적용하면 실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충격 요법'이었다는 해석이다.

김 평론가는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다는 건 세계적으로 동일하다. 그럴 한 공간에서 이야기로 표현한 점도, 그 공간을 비인간적인 자본가들이 지켜보는 연출도 탁월했다. 마치 '종이의 집' 초반을 보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거대하고 화려한 세트장, 작위적인 게임과 모두 똑같이 입는 트레이닝복으로 현실과 이질감을 느끼게 하지만 게임장은 정확히 '사회 축소판'이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도 "기혼(이정재 분)이 계속 살아남는 이유도 선한 선택을 해서가 아니라 무조건 가제까지 못하는 환경 아니냐. '오징어 게임'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짚었다. 그래서 서바이벌극의 탈을 썼지만 내용은 사회 고발극이라는 평가도 따른다.

정 평론가는 "게임을 소재로 썼을 뿐 그 게임을 통해 사회, 자본주의를 들여다본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기생충'에 가까운 작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작품 일부 전개에서 여성혐오 등 지적이 인 데 대해서는 "그런 사회 구조 안에서 여성이 어떻게 '소비'되는 지 비판적인 관점을 제시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 작품을 결코 기분 좋은 작품은 아니다. 실체를 드러내는 부분에서 불편하다"고 말했다.

'킹덤'과 '스위트홈'으로 한국판 크리처극을 흥행시킨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을 통해 또 한 번 새로운 세계관을 탄생시키고 인정받았다. 한국은 이제 완연하게 주요 콘텐츠 생산기지가 됐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국내에서 쉽게 하지 못했던 장르들에 꾸준히 도전하고 있다. 그중에는 흥행에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지만 결국 시간과 자본과 경험은 쌓이면 큰 '한 방'으로 터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한국 작품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 인기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해 화제다.

광주여성영화제, 단편 본선 진출작 12편 발표



12회 광주여성영화제 단편경쟁 부문 본선 진출작 '행인'.

12회 광주여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재희)가 단편경쟁 부문 본선 진출작 12편을 발표했다.

광주여성영화제는 올해 권 단편 공모(단편영화경선)에는 첫 공모를 시행한 작년보다 3배가량 많은 총 526편이 출품됐으며 예심을 통해 12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작은 이경호·허지은 감독의 '행인', 왕희송 감독의 '혈연', 전재현 감독의 '퇴직금', 이탁 감독의 '별모지', 홍민기 감독의 '봉합', 방현정 감독의 '잇!', 김지원 감독의 '정글', 이영웅 감독의 '심부름', 백시원 감독의 '젓꼭지 3차대전', 신유정 감독의 '4단지에 사는 인자', 송예찬 감독의 '마리아

와 비운세', 남순아 감독의 '해피해피 이혼파티' 등이다.

예심에는 광주독립영화관 이세진 프로그래머, 영화학자 정무미, 동네책방 숨 책방지기 안혜민, 광주 민우회 활동가 정지은, 12회 광주여성영화제 프로그램팀장 이다혜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단편경쟁 부문 본선 진출작들은 영화제 기간(11월 9일~14일)에 상영되며 총 3개 부문(권 작품상, 권 특별상, 권 관객상) 수상작을 선정해 12회 광주여성영화제 폐막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김구라 늦둥이 아빠 됐다

아내 추석 연휴 직전 아이 출산

방송인 김구라(본명 김현동·51·사진)가 늦둥이 아빠가 됐다.

23일 김구라 측에 따르면, 김구라의 아내 A씨는 추석 연휴 직전 아이를 출산했다.

예정보다 이른 출산으로 아이는 현재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며 건강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해 재혼한 김구라와 12살 연하 A씨는 결혼 생활 약 1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됐으며, 김구라의 아들인 가수 그리(본명 김동현·23)에게는 23살의 나이 차를 가진 동생이 생겼다.

1993년 SBS 공채 2기 개그맨으로 데뷔한 김구라는 긴 무명 생활 끝에 인터넷 방송을 거쳐 TV 방송에 진출해 예능 등에서 진행자로 꾸준히 활약 중이다. 현재 출연 중인 방송으로는 MBC TV '라디오스타', '아무튼 출근!', '심야괴담회', SBS



TV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 JTBC '음감한술로 육아- 내가 키운다', IHQ '리더의 연애', 카카오투V '맛집의 옆집' 이 있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다흥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등어구이, 주물럭, 썸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해미패션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계량한복·무대의상·작품한복전문 ☎ 062)224-5958, 010-6777-5958	(주)쓰리에이치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온열,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료가·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78번길 13, 검찰청당배려빌 소송, 민사신청,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담등기 각종 법률무로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터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오케네로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음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옛골리리)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굵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주)K&J컴퍼니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255, 3층 미래를 생각하는 제테크, 신재생에너지 제테크 원금보장, 안정된 높은 수익 ☎ 1899-1972	양지공인중개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70 (두암동 946-7) ☎ 062)263-2223, 010-3819-6595	한국기원 광주 북구 운암동 450-17 (운암시장 앞 한국회관 3층) 바둑 원장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넓고 깨끗한 환경 ☎ 010-8610-8373	석당화랑 동구 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고전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79번길 87(임동) 수강생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대신청소전문기업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54, 2층 학교청소, 공장청소, 업소청소, 외벽청소 현장청소, 준공청소, 입주청소, 거주청소 이사청소, 해충방제 ☎ 062)526-1133, 010-6522-1524	송가네반찬 광주 남구 백운로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대신청소전문기업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54, 2층 학교청소, 공장청소, 업소청소, 외벽청소 현장청소, 준공청소, 입주청소, 거주청소 이사청소, 해충방제 ☎ 062)526-1133, 010-6522-1524	동태랑대구랑전문점 나주시 남내1길 4-1 각종 모임 환영 ☎ 010-2127-0888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			